

불교 이래서 좋다

금나나 2002 미스코리아 진

“여유로움과 편안함 안겨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부모님과 같은 종교를 가지게 된다. 타의적으로 종교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나 역시도 부모님이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의 종교는 불교였다. 모든 일을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20살이 된 지금, 난 부모님이 불교신자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불교 자체에 대한 매력 때문에 더욱 불교에 빠져들게 되었다.



마음은 어느새 비워짐이 느껴진다. 올라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여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일상사에서 내가 쓰고 있던 말들, 모두 벗어던진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불상은 자비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온다. 온오히려 퍼지는 향냄새와 영롱한 목탁 소리, 무량수전에서 울려퍼진 108배, 스님께서 들려주시는 법문,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 잡았다.

속진에 찌든 마음은 어느새 차분해지고 정갈해진다. 부석사에서 걸어나오는 뿌듯함은 형용할 수 없는 불교의 매력으로 내 마음속에 각인됐다. 가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뒀던 부석사 앞마당, 잊지 못할 것 같다. 불교는 정신적인 지주이자 나를 재충전시켜주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요새 들어 미스코리아 활동으로 자주 절을 못 찾은 것이 아쉽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자리 잡고 있어 언제나 든든하다.

담배를 끊읍시다

니코틴

니코틴은 무색, 유성 알칼로이드 액체로, 천연 담배 잎에만 존재하는 화학물질이다. 니코틴이 사람의 뇌에 도달하면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의 분비가 왕성해지는데

이 물질은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파괴되지 아니하며 한 모금의 담배연기를 마실 때 0.1~0.2mg(한 개비 당 2mg)의 니코틴이 인체에 흡수된다. 니코틴은 매우 유독하여 일시에 60mg이 혈액에 흡수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상인의 처사

습관성 '주범' ... 한꺼번에 60mg 흡수시 사망

배를 피운 사람은 이 때문에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급배를 처음 피우거나 너무 많이 필 때 느끼는 구토, 현기증, 두통 등은 이 니코틴으로 인하여 생기는 증상으로 폐로 흡입한 담배연기 속의 니코틴이 뇌에 도달하려면 약 7초 정도 걸린다.

량은 체중 1kg당 니코틴 1mg이다. 니코틴은 아편과 거의 같은 수준의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는 물질이다. 무엇보다도 습관성을 일으켜 담배를 계속 피우게 하는 주범이다.

추석예절배우기 · 만화축제 · 역사탐방

가을맞이 청소년행사 ‘풍성’



8월 18일 대구 영남대학교에서 열렸던 가을맞이 청소년 특강, ‘올바른 영어학습법’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강의에 300여명의 청소년들이 몰렸다

가을을 맞아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및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놓고 청소년들을 손짓하고 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한가위를 시작으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만화축제, 청소년 육구에 맞는 특강, 생애·역사 탐방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책을 잠시 내려놓고, 가을산책을 떠나보자.

○한가위 ‘송편’과 ‘다식(茶食)만들기’ = 문수방과후공부방은 18~19일 양일간 걸쳐 다도체험을 통한 ‘추석예절 배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차와 미수가루, 송아 가루로 다식을 만들어보는 체험, 전통차 음미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기대된다. 022282-1102. 충남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10일부터 19일까지 인근 5곳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는 ‘독거 어르신과 함께하는 한가위 송편 빚기’ 행사를 갖고, 9월말 경에 충남 서산 호남농가로 ‘가을수확 농촌봉사활동’을 떠난다. 0411736-9003. ○만화축제와 특강 = 부산 양정청소년 수련관은 10월 25일부터 3일간 복지관내 강당에서 ‘제3회 청소년 만화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만화동아리 부스전, 만화 포스터 전시회, 만화영화 상영회, 만화작품, 만화 체험실, 만화작가와와의 만남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0511868-0750. 대구 영남대학교 · 관음사는 학생회 법회 형식이 아닌 청소년의 육구에 맞는 ‘청소년 특강’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특강에는 하나병원 성춘희 간호원장의 ‘성, 바르게 알아야 한다’ 등의 강의가 1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053474-8228. ○생애·역사 산책 = 관악구립신림청소년독서실은 10월 말 ‘생애 역사 산책’을 인근 관악산으로 나선다. 산에 얽힌 역사와 문화 등을 경험하는 이번 행사는 탐방 형식으로 산행 형식으로 진행된다. 02856-1207. 금호청소년독서실도 9월 말 전통문화학습제를 서울 덕수궁, 창경궁에서 갖는다. 022299-4214.

청소년 담당 =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퀴즈로 불교 배워요”

조계사 청년회, 교리경진대회 ... 연화부 우승



“그게 뭐더라?” 잘 생각해봐. 기억 안 나?” 8월 31일 조계사 청년회가 주최한 ‘기초교리경진대회’에 참가한 연화부

“여시아문의 ‘아’는 누구까요?” “가섭이요?” “라후라요?” “네, 정답은 아난존자입니다. 금강부림과, 문화부림만 틀렸군요.” 8월 31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교관, 60여명의 청년불자들이 퀴즈삼매에 빠져들었다. 허를 찌르는 질문들, 한 문제 한 문제가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의 탄성이 커져만 갔다. 올해 들어 10번째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가 주최한 ‘기초교리경진대회’는 8월 21일 40명이 참가한 예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 9월 총 18명이 최종 본선에 올라왔다. “공부하는 청년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열린 이번 대회는 참가자 뿐만 아니라 동참한 회원들까지도 ‘깨비깨비’란 즉석 퀴즈가 열려,

회원 간 친목도모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총 단답식 20문제가 출제된 본선에서 백호정(29 · 최희정 씨(25)가 한 조를 이룬 연화부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연화부팀의 백호정 씨는 “불교 입문서와 입문서를 네번씩이나 읽어 많은 공부가 됐다”며 “자연스럽게 회원 간의 경쟁심도 생기고, 단결심도 커져 좋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조계사청년회 박선호 연수원장은 “어렵고 딱딱하게 느끼기 쉬운 불교교리를 재미있게 공부하는 회원들이 늘어났다”며 “이번 교리경진대회를 계기로 회원 모두가 신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청소년 단신

청교련, ‘자원봉사 한마당’

15일 탐골공원 · 종묘서 외국인 가족과 청소년이 봉사활동으로 우리문화재의 소중함을 느낀다. 1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탐골공원 및 종묘에서 ‘외국인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보존하기’ 자원봉사 활동이 열렸다. 청소년 교화연합회(회장 현성)가 ‘2002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 3차 기획사업으로 전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재 및 공공시설 청소를 비롯해 △안내관, 표지판 바로 세우기 △삼초 뺨기 등의 활동이 펼쳐진다. 02735-8165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원효동문회

배움 마당, 문화유적답사 활발

원효동문회의 가장 큰 자랑은, 2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20살 이상의 나이차이에도 불구하고 회원들간의 정이 돈독하다는 것.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원효동문파워코너에는 매일 회원 상호간의 인부를 묶는 글에서부터 청년회 활동 당시의 잊을수 없는 추억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애경사를 일리는 집안대소사

코너에서도 결혼, 생일 등을 알리는 글을 통해 서로 격려해주고 축하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있다. 올 봄에는 회원들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개최, 친목을 과시했다. 1978년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금수사에서 창립한 원효불교청년회, 청년불자들의 금강산 심로 한때 3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매주 정기법회를 보며 불심을 키워왔으나 98년 회원감소와 여러 요인으로 청년회가 없어져 회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01년 1월 청년회를 사랑하는 일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포털 다음에 원효동문회(http://cafe.

cafe.net/wydong 대표시습이 중무를 개설, 디지털 불사를 완료했다. 지금은 전국에 흩어져있는 회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해 회원만도 100여명이 넘는 사이라 신행단체로 탈바꿈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원효동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못지않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배움의 마당/정공공공 코너에는 회원들이 스스로 수행에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문화유적답사 코너에는 김규철 회원이 한국의 명찰과 관련한 동영상 게재해 불교문화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김두식 기자

Modern Marriage Research Institute advertisement. Title: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Features: '안녕하세요 8월의 태풍으로 아픔이 우리를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굳게니 의망과 용기를 갖고 일어서십시오. 내일은 행복한 시간들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절은 가을을 향하고... 당신을 기다리는 인연의 사랑과 연대에서...' Contact: 032)654-5411

Seonjae Buddhist Law School advertisement. Title: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Features: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Contact: 02)747-1567

Unjang Sunim advertisement. Title: '화엄기도도량'. Features: '귀의 삼보하옵고 고통과 괴로움은 자신이 지은 죄 병의 원인은 인연 따라 오는 법 고침도 인연 따라 낫는 법입니다.' Contact: 031-336-3734

Unjang Sunim advertisement. Title: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Features: '5色 광채의 빛을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운림佛字체'. 100% 정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Contact: 033) 766-0057